

<코리아연구원 10주년 기념 좌담회>

## 중전 70년과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참석: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원동욱 동아대 국제학부 교수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리아시·북한인프라센터 소장

사회: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때: 2015.07.16.(목)

곳: 코리아연구원 사무실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이해서 미일 신밀월시대, 러시아의 성대한 종전 70주년 행사와 북러 관계 밀착, 오는 9월 중국의 종전 70주년 행사 예정 등 한반도 주변정세는 종전 70주년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나라들인 미국, 중국, 북한을 연구하는 3분의 전문가를 모셨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종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는 멈춰 있다. 종전 7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동아시아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우리의 나아갈 국가적 진로를 모색해야할 때이다. 코리아연구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한겨레평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이번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는 한겨레신문 2015년 7월 21일자에 게재되었다. 지면 제약으로 신지 못한 내용은 포함하여 좌담회 내용을 전재하고자 한다.

사회 : 먼저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집어보자.

김준형 :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현실적 가능성에는 예민하다. 정전협정 주요 당사자인 미국은 궁극적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옮겨가야 할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반도의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미국이 평화체제 논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이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평화협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핵화를 회피하고, 유엔사령부를 해체한 후 미군철수를 피하고, 남한을 배제하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 영구적인 평화체제 협상을 언급한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에 영구적인 평화체제 협상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 때에 시작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평화체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어떠한가?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북중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원동욱 : 먼저 북중관계를 보자. 중국 내에서도 북중 간 혈맹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구도 자체가 변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중국과 북한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무게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2013년초 3차 핵실험과 같은해 말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서 북중관계가 일정한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이 초국경 협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장성택 숙청을 통해서 좌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럼에도 현재 북중관계는 정치는 차갑지만, 경제는 뜨겁지는 않지만 따뜻하다. ‘정냉경온’(政冷經溫)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나진항과 북중 세관들을 통해서 북중경협이 중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안병민 : 북중 간의 관계는 비정상적이면서도 민감성이 보인다. 올해 초에 일본 언론에서 재미난 비유를 했다. 올해 초 북한 병사가 중국 국경을 넘어 중국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군인 한명이 중국 땅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문제제기를 했다. 많은 곳에서 주민들의 반일 데모와 함께 심각한 외교문제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북중 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북중 관계의 특수성, 비정상성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많이 나아졌다. 장쩌민이 북한에 가서 관계 개선을 했지만, 2013년에는 장쩌민이 사용했던 북중관계의 16자 원칙을 중국이 사용하지 않

았다. 이런 모습이 없어 저서 북중 관계가 안 좋아졌다 생각했다가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서 다들 오해를 한다.

중국은 G2 국가로 세계적인 대국이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과 연계되는 모습을 경계하려 한다. 북한은 송유관이 3개가 있다. 하나는 선봉항에서 승리화학공장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선봉역에서 승리화학공장으로. 단동에서 백마로 보내는 송유관이 있다.

백마에 있는 봉화공장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을 보고서 북한에 원유가 안 들어가는 것을 판단한다. 백마는 파이프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정비해서 안 들어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이 에너지 순 수입국이 되었다.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는 무역가격, 우호가격, 무상원조 세가지 형태로 들어간다. 중국이 북한에 무역 가격으로 판매하는 원유가는 국제가격보다 비싸다. 가끔 북한에 들어가는 것에 우호가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북중 경험은 우리가 보는 것 보다 매우 복잡한 관계에 있다.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 : 북중러 관계를 북방3각 관계 구축이라는 일각의 평가는 어떻게 보는가?

안병민 :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는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와 메드베세프가 만나서 극동시베리아를 함께 개발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양국 간에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의 중국 동북지역이다. 중국 동북지역은 수송인프라 한계에 따른 접근성 인프라와 시설비의 노후성 때문에 재원을 지원해도 어려움에 있다. 러시아는 과거 극동시베리아에 대해서 계획대비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은 10프로도 안 된다. 양쪽 지역의 안 되는 지역을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양쪽 지역에 대해 협력하는 초국경 협력인 한반도의 약10배 되는 극동과 중국 지역의 협력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에 국가 이익과 지역의 공동이익에 대한 공동문제가 있다.

전 세계의 물류시장에서 파나마 운하의 폭은 32미터이다. 과거에는 파나마 운하에 들어가는 배는 32m 넘으면 못 들어가고 남미를 돌아간다. 지금은 물류가 발전함에 따라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야만 한다. 미국은 셰일가스를 수송하기 위해서 파나마운하를 확장하고 있다. 내년엔 공사를 마친다. 셰일가스가 남미가 아니라 파나마운하를 통해서 아시아로 몰려들게 된다. 러시아가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최고의 에너지 국가로 등극했으나 미국이 셰일가스를 아시아에 공급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다른 나라에 가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경험 중에 있다.

원동욱 : 남방 3각과 북방 3각 구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북중, 북러, 중러 양자 관계만 있지 않을까 싶다. 중러 관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현격한 밀월관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협력에 대한 협력 체결은 후진타오-메르데세프에서 가까워 졌다.

나진항을 두고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적 구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동북3성과 바이칼에 대한 공동 개발 추진에 있다. 북중러 삼각협력이 두만강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하에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진-하산이 진척되지 않는 것이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이 자기검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변화이다.

사회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속히 악화된 미국 러시아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김준형 : 미국과 러시아가 안 좋아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하기 힘들어지는 것인가? 지금 우크라이나 경제가 매우 안 좋다. GDP가 20% 감소했다.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물기 위해서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관주들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만일 협상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국제통화기금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약속한 차관 지불을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되는 동안 서방이 한 유일한 일은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강화시킨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도에 넘치는 냉혹한 게임'이라는 비판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2의 한반도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 승전 60주년 행사 때는 서방이 부시 포함해서 다 참석했으나 이번 70주년 행사에는 독일 빼고 서방 그리고 한국도 참여하지 않았다. 종전을 두고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로 나뉘어져 있다. 역사전쟁 주도권 같은 것이다. 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피해를 보면서 해결책은 안보이다. 러시아가 가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러시아는 고마워하지만 미국은 특별히 압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한국은 자기검열에 의해서 북방지역 협력에 참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사회 :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중관계이다.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을 봉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말하는 것 아닌가.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준형 : 과거에는 쌍무동맹이 있었다. 남쪽에서는 미국 중심, 북쪽은 북한 중심에 있는 쌍무동맹이다. 최근 상황을 신냉전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의미인가 살펴야 한다. 투키디데스의 덫이나 세력전이 이론도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렸다고 보지만 미국의 정책은 양다리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은 양다리이다. 어느 쪽으로 쏠렸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의 부상속도는 경향적으로 빠르고 공격적이다. 미국은 경제적 하락, 재정적, 자원적 위기에 겹쳐져 있다. 중국의 속도가 빠른 것이 트렌드가 대중 봉쇄 쪽으로 약간 기운다는 것이 과거의 역사적 요소를 가져온 봉쇄라는 것은 역사적 관점이 잘못된 것이다.

오바마는 중국을 G2로 부른 것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데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자신을 제3세계국가나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다가 신형대국론을 쓰다 보니, 미국은 G2라고 중국에 대해서 쓰지 않는다. 마치 G2가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강하게 나오다보니 G2라고 쓰고 있지 않다. 중국의 부상을 한국이나 일본에 아웃소싱 하지만 아직은 양다리이지만 중국 견제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사회 : 중국이 신형대국론을 제기한 배경은?

원동욱 : 중국이 미국에게 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을 피하려는 생각이 있다. 배경적으로 아시아재균형정책에 대해서 다시 봐야 한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견제하고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 대중정책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과거의 대 소련에 대한 것은 전략적 의도 차이가 크다. 중국의 신형대국론의 외교적 담론은 내부적으로 보면 좀 모호하다. 그것을 설명하는 화법에 대해서도 당위적이다. 신형대국관계를 설명하면서 평등, 상호이익, 상호신뢰를 통해서 소통하고 대국 간의 공통 이해를 이루자고 한다.

G2에 숨겨져 있는 수직적 관계가 있다.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수평적관계로 접근하려는 외교적 담론으로 보인다.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도 등 강대국 간 외교 담론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 일대일로로 중심이동을 하고 있다.

사회 : 신형대국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김준형 :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으면 미국을 인정해 준다는 게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해석 상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해석하기에 따라서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다. 남중국해나 동아시아 중국의 핵심이익이니

미국과 평등하거나 미국이 참여하지 말라는 말로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지만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은 힘겨루기에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다하고, 오히려 미중 사이에 간보기로 보인다.

사회 : 남중해를 포함한 미중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김준형 : 미중이 전쟁할 것이라고 커다란 담론으로 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말이다. 미중 경제 상호의존으로 전쟁할 수 없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간보기 테스트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데미지가 크다. 두 나라가 작은 돌 던지는 사이에 우리가 돌을 맞을 수 있다. 우리는 군비경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간보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된다. 사드도 결국 간보는 것이다.

안병민 :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다가 미국이 피벗 투 아시아를 선언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건드리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한미동맹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요구대로 우리나라도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하는 점에 있다. 미국과 중국의 핵심이익의 문제에 우리가 끼어드는 상태이다. 미중이 시장과 자원을 생각할 때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익을 건드리면서 동맹 관계를 체크하는 것이다.

원동욱 : 미국이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악화로 인한 분쟁을 활용해서 아시아에 영향력을 미치려한다. 이것이 중국봉쇄로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일대일로라는 것은 경제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해외진출로 하려는 것으로 본다. 그랜드 디자인으로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전략에 대한 중국판 대응전략이다. 미국과 한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고 회피하면서 부상하겠다는 것이다.

안병민 : 과거 전 세계의 운송시장을 미국, 영국, 일본이 장악을 했었다. 2001년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기념행사에서 러시아는 그것과 대항할 수 있는 육상을 통해 구축하겠다는 것이 그랜드 디자인이었다. 유럽이나 남미 자원을 가져와도 중국은 내부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하는 게 필요했다.

사회 : 미중관계에서 경제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김준형 : 미중은 대국이다. 두 나라 전 세계 GDP는 40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의존에서 충돌로 가지 않는다. 중국은 1조 2천달러 내외의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

다. 무역량은 5,500억달러이다. 중국은 캐나다에 이어서 미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다. 미국도 EU에 이어서 중국이 두 번째 교역국이다. 미중간의 상호의존도는 과거 어떤 국가들보다도 높다. 과거 독일이나 영국은 최종재를 주로 거래 했지만 지금 미중처럼 기술, 교육, 무역, 외환보유까지 다차원적인 상호의존을 보이지 않았다. 국제정치에서는 구조가 작동해서 상호의존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지만, 리더십의 인식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원동욱 : 교역차원에서 미중 간에도 충돌지점이 있다. 최근에 미국의 경제가 다소 활성화되면서 중국의 대미 투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가 사이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기업들의 대미 흑자, 증시 상장 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중국은 서로 떠나서 살 수 없다. 갈등이라는 것도 일정한 한계이다. 미중 간에는 100개가 넘는 대화채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 년에 두 번씩 전략경제대화를 하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기제가 있다.

사회 : 그동안 미중 상호의존보다 군사적 긴장만을 바라보았다. 현재의 미중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김준형 : 투키디데스 뜻이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세력전에 따른 전쟁은 뜻이다. 15번의 세력전은 11번 전쟁으로 갔다. 엘리슨 같은 이들은 전쟁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4번의 전쟁으로 가지 않았던 것을 살려서 전쟁을 피하자라는 것이다. 미중 충돌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말로 투키디데스 뜻이 아니라 엘리슨의 말에 따르면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나 한국은 이와 좀 다르다.

원동욱 : 미중은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동북아에 속한 한국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미중 간의 관계에서 중국이 부상 한 이후에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지면서 양국 간의 갈등은 해소되고 있다. 미중관계를 동주동배라고 봐야한다고 당위적으로 이야기한다.

사회 :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둘러싼 각국의 외교를 살펴보자. 미일 신밀월관계의 배경은?

김준형 :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은 지난 4~5년간 아무런 것도 없었다.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회귀정책 실적을 냈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이 그것이다. 2011년부터 5000억불 정도로 감축해야 하고, 미일 신안보관계로 가야 한다. 미국이 돈 없이 할 수 있는 Re-balancing은 일본을 끼고 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을 이렇게 붙잡아

야 하고, 아베의 국내정치에도 필요하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께 가자는 것이나 미국과 일본이 먼저 집을 지어놓고 한국이 끼어들라고 하고 있다. 윈디 셔먼의 연설이나 케리가 미국은 일본이 충분히 사과를 했으니 한국이 함께 협력해서 가자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이다. 물론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사회 : 아베의 행보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하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스텐스를 취하는 것인가?

원동욱 : 작년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이 국기가 없는 배경에서 아베와 악수를 하고 고개를 돌리는 사진에서 중국의 인민들은 큰 감명을 받았다. 이번 반동회의에서 시진핑의 좀 더 친해진 모습으로 아베를 만났다. AP 정상회담 이후부터 중국은 일본에 대한 관계 회복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아베를 9월 3일 초청 하면서 아베가 던져야 할 한계가 정해질 것이다. 중국은 대일 강경 노선에 한국이 같이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은 아이러니 하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을 봉쇄해 가려하고 있다. 중일관계를 복원해야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대응한다고 본다. 중국의 외교부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에 대해서 자제를 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회 : 중국은 9월 3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일본을 비판한 후 일본과 관계 개선으로 나가는 것인가?

원동욱 : 중국이 전승절을 진행하는 9월3일부터 나흘 동안은 휴일이다. 대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중국의 위대한 꿈을 과시하는 것이다. 중국의 힘을 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서방 국가들은 천안문 앞에서의 열병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항일전쟁 승리와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인데 일본의 아베를 초청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청대상자이다.

사회 : 김정은 위원장이 9월 3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안병민 : 전승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만 행사를 한다. 두 나라만 유독 강조를 한다. 북한도 70주년 이라는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에 묻어가려 한다.

사회 : 8.15 전의 아베 담화, 9.3 중국 전승절 행사, 그리고 10월 10일 노동당 70주년 행사를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노동당 창건 70주년 준비는?

안병민 : 북한은 기념일에 맞춰 건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선’ 이라는 표현은 노동당 70주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시대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핵강국 이라는 강조하려는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사회 : 아베는 보통국가로 가려하고 중국은 대대적인 전승절 행사로 자신의 취지대로 가면서 대일정책에서 미세한 조정을 하고,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안정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할 것이다. 8월부터 10월까지의 동아시아 정세가 약동한다. 북한을 들여다보자.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안병민 : 김정은 체제 3년은 안정적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조정기라고 보인다. 북한의 경제는 이전과 다른 양상에 있다. 거시적인 경제는 개선되지만,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는 붕괴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에 있다. 북한 경제를 한국은행은 조금 보수적으로 약 2프로 성장했다고 보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5% 성장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농업이 포전담당제로 가면서 생산의욕과 성과가 늘어가고 있다. 시장의 확대와 쌀값 안정이 북한 경제에 플러스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 진다. 안 좋은 측면은 공장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 있다.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경제는 침체기에 있다. 양극화 현상과 지역, 계층 간의 소득의 큰 차이는 새로운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토지법과 철도법은 투쟁을 통한 혁명의 전취물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두 개의 법이다. 북한은 이런 상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과 손을 대고 있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 하고 있다. 북한의 도로법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다. 그 대상은 외국인에만 국한했다. 이제 법을 개선해서 모든 주민이 통행료를 내게 되어 있다. 평양 순안공항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지원 하에 완공되었다. 북한은 싱가포르에 공사 대금을 지원해 줄 수 없어서,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에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해서 통행료를 가져가라고 말했다. 여태까지 없었던 개념인 투자비의 회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인프라와 같이 우리가 없는 것은 외국의 도움을 받는 다는 것에 북한의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개성과 원산 개발을 보면 신공항과 원산에 가까운 갈마 비행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민간 공항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원산과 금강산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위해 유연성을 취하

고 있다.

원동욱 : 북한의 그 많은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서 북한이 AIIB를 활용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중국의 중아시아에 대한 확대와 접근에 일대일로와 연결해서 동북3성도 포함하고 있다.

안병민 : 중국이 각 지역을 나누어서 일대일로 개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북한에 대한 글자는 나오지 않는다. AIIB 시범사업에 중앙아시아와 가입된 국가 보다는 두만강 지역과 3각협력 지역이 소규모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회원국가가 아닌 곳에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공유하고 있는 이익의 결합이다.

사회 : 쿠바와 관계 개선도 했고, 이란 핵협상도 타결되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가 없는가?

김준형 : 기자들에게 전화 받고 있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문제. 핵 협상과 연결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에 대해서는 NO라고 보인다. 이란도 포기했으니 북한도 포기하라는 압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오바마 임기 내 해결하기 어렵다. 오바마는 북핵 말고 업적이 많다. 괜히 어려운 것을 건드릴 일이 없다. 지금 미국의 북한 내 여론이 매우 안 좋아서 괜히 건드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을 미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다.

안병민 : 미국과 쿠바, 미국과 북한은 상태가 다르다. 미국과 쿠바는 양자 간의 문제이다. 이란과 미국은 중동국가를 설득하면 되지만, 북한 문제는 한, 중, 일, 러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 문제는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 : 여전히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미중 사이의 복합적 관계가 한반도의 긴장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미중간의 상호의존에 의해서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같이 우리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공간을 넓혀 나가는 외교를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3성과 연해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이 일본과 관계 개선의 소지도 있다. 모든 나라들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 한국의 나아갈 길은?

김준형 : 진영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는 진영 속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먼저 사드와 같이 우리가 먼저 말려들고 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직접 우리가 일본을 실무적으로 만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크로스 오버. 미국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지만,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면 미국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조금 싫어할 기미가 있으면 한국은 꼬리를 내린다. 6자회담 문턱 낮추기, 북한과 관계 개선에서 모두 미국을 살핀다. 진영을 넘는 크로스 오버가 일어나야 하고 다자간 접근이 필요하다. 시진핑이 일본에 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를 풀려는 통로를 만들지 못한다.

원동욱 : 연미화중, 말은 좋지만 공허한 발언이 될 수 있다. 긴장과 갈등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드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연미를 하면서 화중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 외교적 공간을 확대해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현실주의자가 갖는 비판을 떠나서 우리의 생존모색을 위해서 반도에서 해양과 대륙사이 교차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동북아라는 공간은 이 문제를 풀기에 좁다. 결국 미중의 격돌 속에서 우리의 선택으로만 이해되어질 것이다. 이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나온 신아시아 구상이라는, 아시아라는 공간적 구조가 중견국이라는 입장에서 북방루트와 남방루트를 통해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세력을 구축해야한다. 그래야만 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넘어설 수 있다. 균형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유라시아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이다. 동북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안에서만 움직이면 어려움이 있다. 유라시아로 더 크게 넓고 나아가야 한다.

사회 : 다른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동북아로 갈등이 응축되는데 우리가 동북아에 갇히면 안 된다. 공간을 넓히자. 이미 공간을 넓혀온 안병민 박사님의 생각은?

안병민 :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이익이라는 개념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너무 변화가 크기에 지정학적 이익은 적다. 나진항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접근의 개념보다 나진항을 통해 중국의 배가 출항을 했다. 북극해로 갔다. 중국이 동북3성에서 나진항을 통해서 가면 경제적인 실익이 크다. 우리는 계속 북한이 배고프면 나오겠지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북한은 5.24조치로 묶여있다. 과거에는 북한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한국에 이야기를 해서 대신 이야기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들과 북한과의 관계를 쳐다만 보고 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 대한 개념은 좋지만 현재의 상황은 갇혀있는 상황에 있다.

원동욱 : 일대일로를 보면 중국은 중국-파키스탄을 AIIB에 가장 먼저 투입한다. 중

국이 만드는 회랑 안에 한반도랑 연결되는 것은 없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개방적이고 포용성이 크다. 일대일로는 정책소통이다. 정책소통으로 다르게 그릴 수 있다. 국내외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일대일로는 개념도일 뿐이다. 이는 계속 확장될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하면 유라시아 경제벨트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반도와 결합되는 것은 압록강, 두만강이 있고 중국은 철도를 압록강, 두만강을 연결하고 있다. 한국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를 같이 고려하는 상황에서 두만강 부문을 함께 고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남북관계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지정학적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러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회의적이다.

김준형 : 우리가 스스로 베타적인 족쇄 안에 있다. 최근 한국의 상황은 동북아국가 사이에 끼여 있고 국내 경제 문제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내부가 힘들다 보니 외부적으로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난다.

안병민 : 국경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단절, 통제, 분쟁을 의미했다. 앞으로 유라시아의 국경은 전망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단절이 아니라 소통, 번영, 평화로 갈 것이다.

사회 : 지금 동아시아가 약동하고 있다. 북한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대는 분명하게 시도하면서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미국은 다들 자국의 이익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동아시아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략을 짤 수 있다. 하지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세력과 힘이 미약하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작용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지정학적이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현실이 이렇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좋은 토론 감사드린다. 7월 21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리고, 전문은 코리아연구원 홈페이지에 실릴 것이다. (2015/07/21)



※코리아연구원(이사장: 박영재 / 원장: 김창수)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 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CMS자동이체

홈페이지([www.knsi.org](http://www.knsi.org))에서 직접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처로 전화(02-733-3348)주시면 더 쉽습니다.

※온라인 송금

우리은행 1005-100-937962(예금주: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